

# 전국개인택시-연합회신문

신년호 | 2012년 1월 13일

발행인 유병우  
 편집인 김유중  
 발행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편집대행 (주)석유가스신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9-11번지 | 전화 : 02)557-7351~2 | 팩스 : 02)554-7359

## 정책기사

### 택시·버스·화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100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택시 및 버스, 화물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 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이 '11년 5월 19일 공포되어 되어 법적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2011년 12월 31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재정지원 예산안이 의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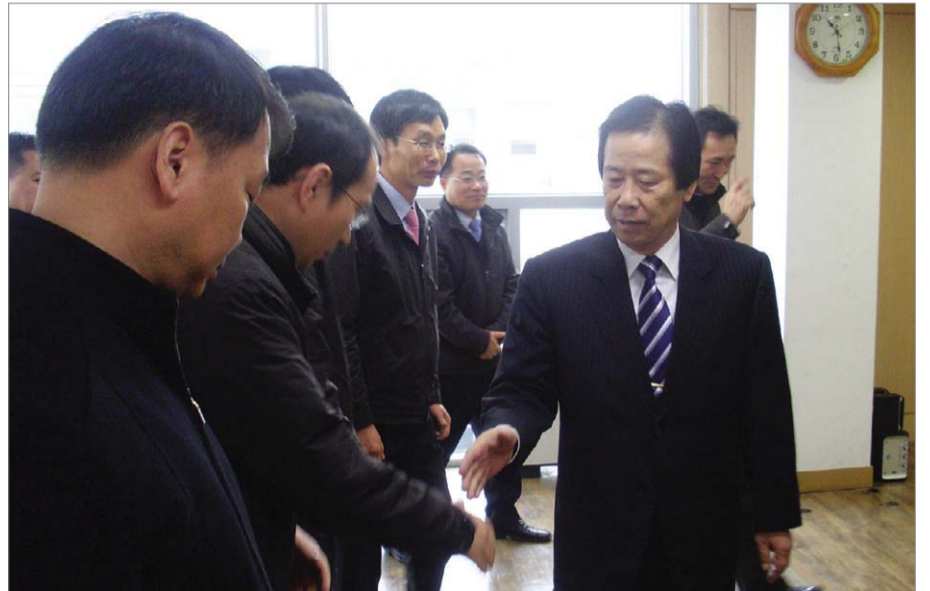
예산안이 의결되는 과정에서 국토해양부는 2012년도 예산편성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 200억원을 201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주도록 신청하였으나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전액 삭감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및 장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

가하는 것은 사업자의 부담이 매우 크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국토해양위원회에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줄것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2011.1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논의 하였으며, 2011.12.31.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화물 버스 등 업계에 대한 지원금 100억원이 2012년 예산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우리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은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시·도조합 이사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국회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치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연합회는 추후 업계간 예산배분과정에도 우리 연합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술 기자>



**열심히 합시다** 1월 2일 연합회 임직원과 공제조합 임직원 합동 사무식을 마친 유병우 회장 이부장급 간부들과 일일히 악수를 하며 새해 분발을 당부했다.

#### 연합회 홈페이지 개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있어 인터넷 매체를 통한 정보공유 현상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연합회와 관련된 정보를 시·도조합, 지부 조합원 및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

하여 2012년 1월 1일 부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하였다. 홈페이지 이용은 주소창에 <http://www.개인택시.org> 또는 네이버, 다음 등 검색창에 "전국개인택시 연합회" 를 입력하면 되고 게시판의 글쓰기는 당분간 조합 임·직원, 지부장 등 에게만 허용하기로 하였다.

The Best Choice For Your Car!!  
[www.hyundaiDGM.com](http://www.hyundaiDGM.com)  
 후원사 : 현대정보기술(주)

## R1

2.8" LCD패널  
 General Class

**디지털운행기록계**

MODEL : R1

- ▶ 12V~24V (Free Voltage:프리볼트(택시/화물/버스등)) 적용 - 국내 최초 모든차량에 장착 가능
- ▶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 ▶ EMI(전자파장해) Solution 적용제품
- ▶ 초 경량을 실현한 미니멀 사이즈
- ▶ 국내 최초 [C/S(고객서비스센터)] 운영

**Zen-2**

3" LCD패널 Premium Class

**택시미터기 일체형 디지털운행기록계**

MODEL : ZEN-2

- ▶ 브랜드콜, UTIS와 완벽호환
- ▶ 대용량의 타코데이터 저장(최소1년 보장)
- ▶ 2" Thermal Printer
- ▶ EMI(전자파장해) Solution 적용제품
- ▶ 국내 최초 [C/S(고객서비스센터)] 운영

**블랙박스**

H7-1 (HD급 1CH)

HB-5000W (VG A급 2CH)

주식회사 현대디지엠 [www.hyundaiDGM.com](http://www.hyundaiDGM.com)  
 133-832 서울 성동구 성수2가 277-30 성진코원 802호

Tel 02-468-3000 Fax 02-468-0468



신년사

#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개정에 연합회 역량 집중하겠습니다



회 장 유 병 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 했던 신묘년 한해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  
라지고 임진년 용띠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격동의 연속이었습  
니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의 야권  
단일후보가 당선 됨으로써 집권여당의 혼란과 분열  
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더우기 젊은층의 투표저지  
를 위해 여당 소속 비서가 선거관리위원회와 야권후  
보 홈페이지에 대한 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을  
자행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말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적 장래  
와 우리 서민의 삶을 좌우할 한미 FTA가 국회에서  
통과되어 향후 국내에 끼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  
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일본 대지진과 원전사  
고로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그 피해에 대하여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긴장 상태가 어느때 못지않게 높아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디지털운행기록장  
치 구입 및 설치에 관한 재정 지원금 100억원을 확  
보 하였습니다.

당 연합회는 재정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  
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및 장착비용을 사업자  
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담이 매우 크고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국토해양위원회에

200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줄것을 정부 및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결과,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어  
2011.11.2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  
회에 회부되어 논의하였으며, 2011.12.31. 국회 본  
회의에서 택시, 화물 버스 등 업계에 대한 지원금  
100억원이 2012년 예산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시·도조합 이사장님의 적극  
적인 관심과 대국회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당 연합회는 추후 업계간 예산배분과정에도 우리  
연합회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금년에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등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  
고 개인택시 정책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도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에 추진할 중요한 과제로서 첫째,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를 포함하는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택시  
의 본래 기능을 회복 시키고, 새로운 수요응답형 교  
통체계에 따른 서비스를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택시(회사)운송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에 따라 매입세액(유류비, 차  
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을 공제 받고 있으며, 또  
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에 따라 부가가치  
세 납부액 90%를 환급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개인  
택시운송사업자는 석유판매부과금, 세전정유사(수  
입사) 공급가격과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면  
세를 받고 있지 못해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  
업자의 사업경영에 불이익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택시운송용 차량에 사용되는 연료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  
세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을 추  
진 하였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편리성과

안정성 이외도 신속성의 장점이 있어 타 교통수단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있고  
또한, 급한 용무가 있는 사람과 환자, 노약자, 외국  
관광객, 신혼부부 등 특수한 경우에 이를 이용하기  
때문 신속성이 중요하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을 허용하여 승객의 불편을 해소 하겠습니다.

연합회에서는 2012년이 우리 업계의 현안문제 해  
결의 적기로 보고 각 시·도조합 이사장님을 비롯한  
16만 사업자의 총의를 모아 각종 입법활동, 불합리  
한 법률의 폐지 등을 강력하게 추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갈수록 치솟는 고유가와 승객감소 등 어느 것 하  
나 만족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속에서 고군분투  
하시는 16만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을 생각하면 가  
슴이 저려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헷갈릴 정도로 침체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할 수 없습니다. 희  
망은 있습니다. 고통스런 오늘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도 변화해야 합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승객에 대한 서비스 강화와 준  
법준수를 통해 개인택시의 위상을 한층 높여 신뢰  
받는 개인택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수  
입증대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안전운  
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친절한 택시 이미지  
를 각인시켜 택시고객을 점점 늘려가야 합니다.

일본의 MK택시의 사례를 보더라도 끝없는 자정  
노력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택시가 되지 않았습니  
까?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16만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임진년 올 한해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업자 권  
익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합니다. 연합회를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개인택시 사업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두손 모아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  
사합니다.

## 공제조합 홈페이지 개인정보 보호대책 도입안내

최근 여러 금융기관 및 대기업들의 고객정보 유출  
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지난 9월30일자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다.

그로 인해 각종 포털 사이트 및 금융기관 등 아이  
핀(I-PIN)이라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어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도입 시도중이다.

아이핀(I-PIN)이란 인터넷 상에서 주민번호를 대  
신하여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수단을 말한다.

현재 개인택시 공제조합 홈페이지도 아이핀 아이  
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웹사이트상에서 더이상  
주민번호를 이용하지 않아도 회원가입 및 기타 서비  
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합원 및 직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최대한 막기위해 아이핀(I-PIN)을 도입  
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산팀>



## “욕먹지 않는 이사장이 되겠다” 취임 약속에 기대



▲ 취임식에서 즉석연설로 짧고 간결하게 취임소감을 밝히고 있는 이연수 서울조합이사장.

‘현재 우리 조합원들의 아날로그 운행 기록계를 디지털 운행기록계로 교체하

도록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조합원들의 운행 여건의 불편한 부분을 하나

하나 개선하고 욕먹지 않는 이사장, 칭찬 받는 이사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월 2일 취임식에서 서울조합 이연수 이사장은 이렇게 밝혔다.

외부인사 초청없이 사업조합, 공제지부, 새마을금고, 복지중전소 임직원만이 참석한 이사장 취임식에서 전임 이사장의 불미스러움을 ‘욕먹지 않는 이사장이 되겠다’는 우회적인 말로 대신 사과하고 조합원들이 어렵게 낸 조합비를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례적으로 원고 없이 즉석 연설로 조합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조합의 신뢰성 회복에 조합의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7대 이사장 선거기간 동안 “41년 잘

못된 관행과 악습을 과감히 타파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힌 공약처럼 서울시 조합의 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도 관심이 집중된다.

1980년에 개인택시에 입문하여 관악지부장, 복지회 부회장, 서울조합 부이사장, 이사장 대행 등서울조합에서 쌓은 다양한 경력은 거대 서울조합을 이끌고 변화시킬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국제라이온스클럽 354-D지구 지성클럽회장, 제 5지역 지대 위원장, 장애인분과 위원장을 역임 국제적인 봉사단체를 이끈 경륜도 갖고 있다.

해병대에서 만기복무를 한 이이사장은 세종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을 수료한 학구파다.

〈김관술 기자〉

## 복지가 우선하는 살맛나는 든든한 복지조합 만들 터



▲ 2000명 규모의 종합복지관을 만들겠다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김우덕 울산조합 이사장은 3선 고지를 향해 질주하던 전임 이사장을 낙마시킨 다크호스였다.

임진년 새해 첫날 취임한 김이사장은 ‘복지가 우선하는 살맛나는 든든한 복지조합으로 전환’을 실천과제로 밝혔다.

1996년에 개인택시 울산조합에 입문한지 25년만에 울산조합 정상에 오른 김이사장은 조합세출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있는 조합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조합원의 수익성을 창출하고 조합원 자녀 장학제도의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복지조합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이사장은 주차장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여 조합원들이 노상 주차를 할 정도

로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3천평 규모의 다목적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 자가충전소, 정비공장, 부품매장, 식당 휴게실과 조합사무실이 한 곳에 모여 조합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바랄 수 있습니다. 우덕이가 해내겠습니다. 늘 처음같은 마음으로 변치않는 김우덕이 되겠습니다”라고 선거구호를 내 걸고 당선의 영광을 따낸 김이사장은 경진여객에서 3~5대까지 노조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리더십을 키웠고 울산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에 현재 재학중인 만학도이기도 하다.

〈김관술 기자〉

## 디지털운행기록계 특별보급사업

1월 부터 (주)이비제품 추가 공급

작년 1월 1일부터 당 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디지털운행기록계 특별보급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넷츠코리아는 (주)이비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조합원에게 공급 한다고 밝혔다. (주)이비는 이비교통카드 운영사의 자회사로써 지난해 부도난 광전정보통신의 기술과 노하우를 인수하여 최근 택시미터기 시장에 가세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자금력을 기반으로 장차 택시미터기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제품생산 및 A/S가 기대된다.

넷츠코리아는 이비 제품 역시 기존의 광신GPS통신과 동일한 가격과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하였다.

〈2012년 디지털운행기록계 일체형 택시미터기 공급내용 요약〉

· 공급제품 : 이비 A7, 광신GPS GIT-W  
· 공급방식 : 유가보조금카드 포인트 구매(신한,현대카드만 적용)

· 포인트 가격 : 29만원(36개월 분할상환)

· 월 상환액 : 신한카드 8,796원 / 현대카드 9,000원(매월 적립되는 포인트로 상환하며, 포인트 부족분만 현금으로 상환)

## LPG면세 및 유가보조금

###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걱정없어요

〈조례특례제한법에 의해 택시연료인 LPG(부탄)에 대하여 2012.12.31까지 적용되는 면세 및 유가보조금 세부내역〉 (단위 원/ℓ)

항목	금액	비고
개별소비세	160.82	총지원금액 239.58원 중에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합계액(184.94원/ℓ) 중 ℓ 당 23.39원과 부가가치세 18.49원은 국세청 환급금이며 나머지 197.97원은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으로 지급.
교육세	24.12	
석유판매부과금	36.42	
부가가치세	18.49	
총 지원금액	239.85	

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연합회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연수

투명한 조합 경영 실현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일은 올해의 첫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고 또한 제17대 이사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17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벅찬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무를 느끼기도 합니다.

이올러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의 임직원 일동과 공제지부 복지충전소, 새마을금고 등도 우리 조합의 일부이기에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되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조합원을 섬길 것을 약속합니다.

조합원들이 어려운 운송환경에서도 납부하시는 조합비는 알뜰살뜰하게 살림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욕먹지 않는 이사장, 칭찬받는 이사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재순

복지타운 건설, 조합원 염원을 실현해 내겠습니다



전국개인택시조합원 여러분!

저는 인천개인택시조합 약 9천 여 명의 이사장으로써 2012년에는 첫째 투명하고 변화된 조합, 둘째 조합원들의 열망이 담긴 복지타운건설, 셋째 "택시기본법"의 개정으로 정하였습니다.

전국개인택시조합원 여러분!

올해 제가 세운설계가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 합니다. 우리는 한명이 아닌 16만 전국동일 사업자임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각인 시켜 우리의 사업이 성공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012년 한 해는 조합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권수

내년에는 조합원 복지증진에 더욱 힘쓸 터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LPG충전소(4개) 및 이동통신대리점(KT, SKT) 등의 복지사업을 활성화하여 그 수익금으로 조합비 지원 장려금을 대폭 확대(최고 월2만원)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대리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지난 20년간 사용하던 택시등을 새롭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여 전액 무상으로 공급함은 물론 "택시연료(LPG) 50리터 교환권"을 1만4천 전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LPG충전소 1~2곳을 추가로 개소하는 등 복지사업을 더욱 활성화 할 예정이며, 복지사업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적인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을 조합원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선진 복지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문옥

업권보호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쓸 터



지난 2011년에는 택시영업환경이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출발했으나 세계적인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차수는 고유가에 이어 물가마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우리업계로서는 너무도 힘든 한해를 보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개인택시 사업자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생산성 있는 업권보호와 택시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광주개인택시조합 임직원 모두는 혼연일체 하여 '화합하는조합', '변화하는조합', '희망을 주는조합'을 만들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조합이 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16만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들의 발전과 안전운행하시길 기원 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성우

조합원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터



올 한해에도 우리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의 일치단결된 힘으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도록 합시다!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위기상황은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도 기인하겠지만, 무엇보다도 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우리 업계의 책임 또한 클 것입니다. 택시 수요자는 날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동수단으로써의 택시는 이미 한계에 다 달았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부가서비스의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2012년에도 멈춤 없는 도약으로 우리의 업권보호와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대구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신천일

도덕과 윤리가 총만하고 믿고 신뢰받는 조합 만들 터



대구조합은 임진년 새해에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조합 호출택시를 출범시키고자 준비중에 있으며, 충전소를 1개를 더 임차하여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더욱 증진시킬 것입니다.

또한, 복지회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택시요금을 인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 밖에 택시감차 등 개인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짧은 지면 관계로 자세한 말씀은 추후 신년인사 드릴 때 조합원 여러분에게 소상히 안내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저와 조합을 믿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당부드립니다. 임진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소원성취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상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서돌식

"개인택시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



조합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해 무척 어렵고 힘든 한해를 지내온것 같습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 국내적으로 큰 대사가 있고 우리 개인택시업계에 있어서도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전국개인택시사업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하여 우리의 숙원사업인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통기본법 제정과 각종 세제감면, 감차보상제 조기실시 등 현안문제점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택시과잉공급에 따른 이용승객감소로 일일수익금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조합원 여러분들께 임진년 새해에는 희망이 있고 역동적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경상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배판술

조합원 뜻 받들어 최선을 다하는 조합이 될 터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어 우리 조합원 가정마다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중대한 정치적 일정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우리 택시업계의 업권보호·신장을 위한 각종현안을 관찰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 생각하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총역량을 집중하여 조합원의 염원에 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합원여러분 새해에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조창영

조합원의 깊은 시름이 펴지는 한해가 되길



2011년은 업계가 극심한 경영난에 허덕였던 어둡고 답답한 한 해였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경제가 회복되어 경기여파의 제일 앞자리에 서 있는 우리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깊은 시름이 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그 결실은 기필코 맺으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2012년 한해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밝아오는 2012년 임진년 흑룡의 강건한 기운이 조합원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깃들시길 기원 드립니다.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전라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박상익

택시 선진화 조기 달성으로 복지향상에 힘쓸 터



새해에도 변함없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개인택시 상을 구현토록 하겠으며 또한 택시선진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날로 침체되어가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각종 지원과 버스운행이 빈번하지 않은 벽지노선은 택시가 합승 및 구간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구입과 택시운행에 따른 각종 세금을 면제시켜 영세한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었으면 합니다.

2012년 새해에는 여명을 밝히는 태양처럼 개인택시 가족이 하시는 일마다 날로 번창하시고 작은 선행에도 감동하는 삶이 되시길 바라며 항상 안전운행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최현태

지부장님과 함께 우리업계 현안 해결에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4선의 영광을 저에게 보내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4천 4백여 조합원의 업권보호에 신명을 다 받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에는 감차보상제도 실현을 시작하고 디지털 운행기록계의 지원도 이끌어내야하는 중요 현안들이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지·군 지부장님들 힘을 합쳐 추진하는 사업들이 빈틈없이 성취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합원 여러분께도 개인택시는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수단이라고 소문날 정도로 서비스 향상에 힘써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고 끝없는 도전을 함께 하여주시길 기원합니다.

울산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우덕

한마음 한뜻으로 난관을 극복하는 해가 되길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임진년 새해의 태양이 웅장한 모습으로 떠올랐습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바람과 희망처럼 안정과 화합으로 우리 업권이 신장되고 우리의 삶과 질이 더욱 더 풍요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등으로 올해에도 우리의 업계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 한다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임진년 올해에는 힘차게 승천하는 흑룡의 기운을 받아 만사가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전원이 일치단결하여 매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강원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윤재일

우리업계 현안문제 해결위해 모든 노력 다하겠습니다



2012년 올 한해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지는 해로서, 우리업계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연합회장님과 각 시·도조합이사장님 모두의 힘을 모아 혼연일체가 되어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재정지원문제, 택시감차보상금 예산확보, 택시에 부과되고 있는 모든 부가가치세 면제, 불합리한 법개정 등은 물론 각 시·도의 현안문제를 16만 개인택시사업자가 바라는 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개인택시사업자 여러분! 새해에 뜨는 해는 여러분의 큰 소망을 이루어 주고, 새해에 부는 바람은 여러분의 힘찬 기운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임진년 새해 우리 개인택시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남완

권익보호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올해도 고물가, 고유가 불안속에 승객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어 택시업계의 상황은 올해도 그리 호전될 것 같지 않지만 조합원 권익보호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의 범주에 택시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택시 공급과잉 문제의 해결을 위해 택시 감차 보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운행기록계 등 안전장치에 대해 재정지원이 이뤄지도록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한편 택시연료 LPG 가격 안정화와 각종 세제지원 연장 및 면제를 위해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충청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김해경

개인택시 업권 살리는 한 해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꿈과 희망이 가득한 임진(壬辰)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해는 세계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내수 시장의 경기침체로 인한 승객감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LPG값 폭등으로 인하여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새해에는 16만 개인택시가 희망찬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말도 있듯이 뽕뽕 뭉쳐서 단합된 힘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총선 및 대선의 해입니다. 우리의 힘을 한데 모아 우리 개인택시의 업권을 되살리는 희망찬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조합원들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고영철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 위한 전략 세울 터



조합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하여 혼란과 불안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발목을 잡아왔던 큰 문제들은 이제 대강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합, 단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지난 일을 돌이켜 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차분하게 미래를 설계하는 여유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미래를 위한 전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몇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조합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한 에너지 코리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원부국을 향해 가고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에너지 확보에 땀 흘리는 것은  
세계 앞에 당당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함이자,  
어떤 위기에든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글로벌 KOGAS**



글로벌 에너지 종합기업, KOGAS는 청정에너지인 천연가스의 공급을 통한 국민생활의 행복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도민으로부터 사랑 · 신뢰받는 조합 만들터”

충북조합 최현태 이사장 취임식서 밝혀



▲ 취임식을 마치고 관내 지부장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최현태)은 지난 12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장성동 청사에서 조합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0대 최현태 이사장의 취임식을 거행했다.

지난 10월 17일 치루어진 제 10대 이사장 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직선제 4선의 영예를 안은 최현태 이사장은 취임 축사에서 “4천4백여명 조합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충북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충청북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만드는데 신명을 받쳐일할 것”이라며 “조합원들과 함께 화합, 단결하여 전국 최고의 개인택시운송조합을 만들겠다”

고 다짐했다.

또한,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해 추진한 사업을 빈틈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중점 사업계획으로 ▲감차 보상제도 실현 ▲택시요금의 인상 ▲업권보호 신장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과 안전운행의 생활화 ▲서비스 향상으로 선진 개인택시상 정립 등으로 선진복지조합 달성을 위한 사업이 추진되며 특히, 조합원의 권익신장을 위한 복지개선으로 고객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조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조합〉

## 음주운전 ! 처벌은 더 강화된다

술 한잔에 300만원 최고 1,000만원 벌금 폭탄



송년회와 동창회 등 연말 연시가 되면 각종 모임과 동창회로 잦은 술자리가 예

상 됩니다.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처벌과 재산의 손해 그리고 육체적 교통이 얼마나 커지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11년 12월 9일부터 새롭게 더욱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과 관련하여 조합원의 음주사고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찬찬히 읽어보시고 새해에는 절대로 음주운전 하시는 조합원이 한사람도 없으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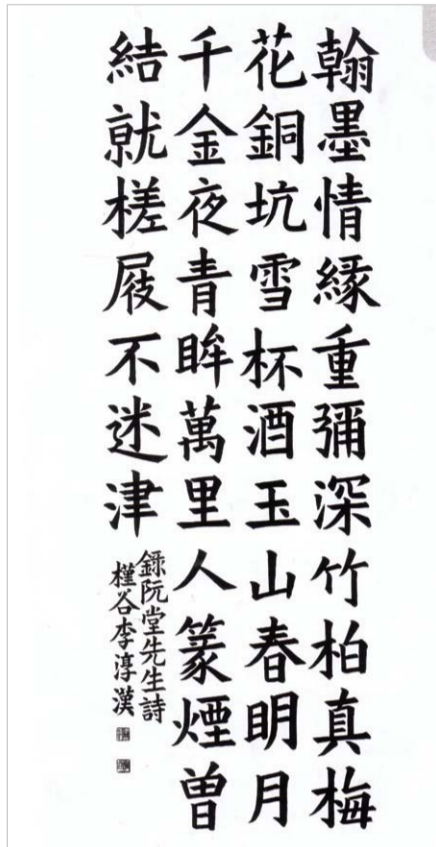
▷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2011. 12. 9시행)

음주운전 위반 횟수	혈중 알콜 농도	징역	벌금
1 ~ 2회	0.05 ~ 0.1%	6월 이하	300만 이하
	0.01 ~ 0.2%	6월 ~ 1년	300만 ~ 500만
	0.2% 이상	1년 ~ 3년	500만 ~ 1천만
3회이상 / 측정거부	0.2% 이상	1년 ~ 3년	500만 ~ 1천만

\* 법적처벌은 음주정도, 처벌횟수, 법규위반전력, 교통사고의 전력 및 내용 등에 따라 위 기준의 범위 내에서 감경 적용됩니다.

## 이순한 개인택시사업자, 국전입선작가로 우뚝서다

개인택시 운전을 하면서도 틈틈히 붓을 잡고 서예에 정진



19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입선한 이순한씨가 화제다.

한시택시를 운행하다 지난 1986년 개인택시 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업계에 입문한 경북조합 상주지부 이순한씨는 7년전부터 서예를 시작한 늦깎이 서예가다.

7년 전에 붓글씨를 시작한 이씨는 상주시 서예학원 최진자 원장으로부터 사사를 받으면서 서울에 있는 서화예술협회 김태수 원장으로부터도 사사를 받았다.



개인택시 운전때문에 상주를 떠날 수 없는 이씨는 김원장으로 부터 우편으로 체분을 받아 연습하고 붓글씨를 교정받는 각고의 노력끝에

지난해 제19회 대한민국 서예전람회에서 입선을 따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운전대를 놓고 서예에 정진한 이순한씨는 ▲국가보훈예술협회 추천작가 ▲한국서화예술협회 초대작가 ▲대한민국 학원총연합회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실력을 쌓았다.

이순한씨는 “개인택시를 하다보니 사람들이 운전수라고 깔보는 것 같아 열등의식을 없애기 위해 시작한 서예인데 국전에서 입선하고 보니 더욱 열심히 해 개인택시 사업자의 영예를 빛내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말한다.

### ◆ 해설문

한국의 정 인연이 매주 중하니 죽백의 참된 마음 더욱 깊어라.

매화가 동강의 눈이라면 잔술은 옥산(아름다운 사람의 풍채)의 봄이로구나.

밝은 달은 천금같은 오늘 밤인데 푸른 눈은 만리밖의 사람이라도.

전자 연기 성취가 맺어졌으나 사극(나막신과 뗏목)은 길건너기가 희미하리까.

〈유니나 기사〉

## “ 한 순간의 착각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손해 한 잔이라도 핸들 잡지 말아야...! ”

●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시 처음인 경우 사고가 없는 경우 벌금은 대략 음주운전 취소인 0.1%이상인 경우 150만원 이었으나 강화된 처벌은 최소 300만원으로 두배로 강화됩니다.

● 음주운전은 1996.8월 약관개정으로 면책금의 대상(대인200만원, 대물50만원)이며 자차(차량손해)로 처리 받지 못합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대법규 위반으로 공제조합의 보험가입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됨을 알아야 한다.

● 또한, 차회 공제가입시 특별할증율로 인한 공제분담금(보험료)도 대폭 인상되어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 음주운전! 단속되면 큰 손해! 사고가 발생하면 더 큰 손해와 인신구속까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 문제없어... ” 라는 한순간의 착각으로 긴 시간 쌓아온 개인택시조합원의 명예와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한잔을 마셔도 핸들을 잡지않는 베스트드라이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보상지원실〉

### 1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적극 대응

□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 11. 04. 12)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정책 기본방향 제시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li> <li>◎ 국민의 교통권 진흥(교통권 보장, 교통권의 진흥의 시책방향 등)</li> <li>◎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흡수 · 통합</li> <li>◎ 대중교통 관련 조항 신설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등)</li> <li>◎ 교통산업 육성 지원 등 (교통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촉진, 민간참여 촉진 등)</li> </ul>

□ 당연합회를 비롯하여 택시 노 · 사 4개 단체는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출 및 의원입법 발의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시 4개 단체의 국토해양부 건의 및 의원입법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 포함</li> <li>◎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에 택시 포함</li> <li>◎ 대중교통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항목에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 · 다양화, 연료 저감형 저탄소 교통수단의 보급 등 추가 신설</li> <li>◎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버스 및 택시를 경영하는자가 구조조정이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 지원 할 수 있도록 함.</li> </ul>

-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11. 02. 23)한 「교통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택시 노 · 사 4개 단체는 공동명의( 11. 02. 28)로 『교통기본법안』에 대하여 육상(택시 · 버스 · 도시철도 등) 해상 · 항공의 여객교통 및 화물교통 등 모든 교통수단을 망라하여 『교통기본법안』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 하였다.

- 또한 택시 노 · 사 4개 단체는 택시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와 관련하여 임원 및 실무자 회의를 수차례 걸쳐 『교통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여 · 야의원들에게 입법발의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고, 홍보 포스터를 시 · 도조합 및 시 · 군조합(지부)에 송부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추진하였으며, 이와 병행하여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법제화 촉구 서명운동을 진행 한 결과 개인택시는 3만여명 등 택시업계 종사자 10만 여명이 서명하였다. 서명자료는 다가오는 금년 임시국회, 총선 및 대선에 택시업계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나라당 현기환의원 등 13인( 11. 10. 31),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 등 10인( 11. 11. 21), 민주당 최규성의원 등 10인( 11. 12. 12)이 입법발의

- 택시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교통기본법안』을 발의하여 주었다. 현재 3건의 제정안은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택시 노사 4단체는 협조와 공조체제를 적극 활용하여 우리업계의 요구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

□ 허태열의원 등 13인이 공제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전체 운영위원회의 정수를 현행 25인에서 35명으로 증원하며, 이 중 시도조합대표 16명 전원이 공제운영위원회에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0. 08. 19)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 11. 04. 29)됨에 따라 11. 05. 19 공포 되었다.

공제조합운영위원 정수 개선 시 · 도조합이사장 전원 포함	중 전 25명 이내	⇒	개 정 35명 이내
------------------------------------	---------------	---	---------------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적극 대응

□ 당연합회를 비롯하여 전국택시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등 공동명의로 김춘진의원 등 10인, 박준선의원 등 27인, 문희상의원 등 15인이 발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국회에 철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국토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발의자	주요내용	건의
김춘진의원 등 10인 ( 11.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E- BUS 불법운행을</li> <li>◎ 전세버스운송사업 범위로 인정 합법화</li> </ul>	⇒ 철회
박준선의원 등 27인 ( 11.04.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E- BUS 불법운행을</li> <li>◎ 여객운송주선사업으로 인정 합법화</li> </ul>	⇒ 철회
문희상의원 등 15인 ( 11.0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승차인원을 하향 조정(26인승 이상 → 8인승 이상) 하려 하는 것은 자가용의 불법여객운송 증가</li> </ul>	⇒ 철회

###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

□ 당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택시 노사 4단체는 불법여객운송으로 여객운송질서를 문란시키는 대여자동차에 대한 가맹사업제도 도입 철회, “찾아가는 버스” 및 농어촌버스 차량 규모 완화는 전면 백지화하여 주고, 농어촌 지역의 여객에 대한 교통편의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현행 중형택시 또는 대형택시를 찾아가는 택시로 대체하여 줄 것을 건의( 11. 11. 07)하였다.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11.10.19)	주요내용	철회, 백지화 건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지역 “찾아가는 버스” 운행</li> <li>◎ 렌터카 가맹사업 도입</li> <li>◎ 농어촌 차량 규모 완화</li> </ul>	⇒

###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공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	◎ 전세버스 운영을 예외적으로 허용
--------------------------------	---	---------------------

-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당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11. 7. 14) 하였다.

○ 당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민주택시본부,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공동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1.8.01)을 제출하였다.

※ 건의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공동이용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불가	◎ 전세버스 영업범위를 현행의 예시적 규정에서 제한적 · 열거적 규정으로 개정 건의
---------------------------------------	--

○ 당연합회는 국토해양부가 택시 노 · 사 4단체, 버스연합회, 자동차노련 등을 구성하여 개최한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조정협의회에 적극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던 결과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반대는 반영되지 아니 하였으나 현행 전세버스의 제한적 노선운행 허용 규정을 예시규정에서 단서규정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우리 업계의 건의사항은 반영되었다.

- 1차 실무조정협의회 회의개최( 11. 08. 26)
- 2차 실무조정협의회 회의개최( 11. 09. 01)
- 3차 실무조정협의회 회의개최( 11. 09. 06)
-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관련 회의( 11. 10.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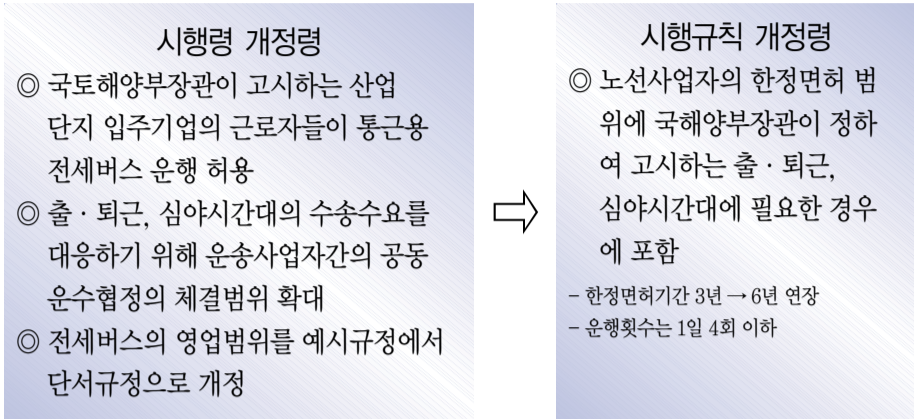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1.8.12)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 · 퇴근 시간, 심야 등 특정 시간대에 특정 여객 수송수요 대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공동운수 협정 체결하여 한정면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정면허기간 3년 → 6년 연장</li> <li>-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변경 또는 운행횟수 등 규정</li> </ul> </li> </ul>



○ 당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공동명의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11.9.01)을 제출하였으나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 ( 11. 12. 30)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6 2012년도 택시감차보상금 정부예산편성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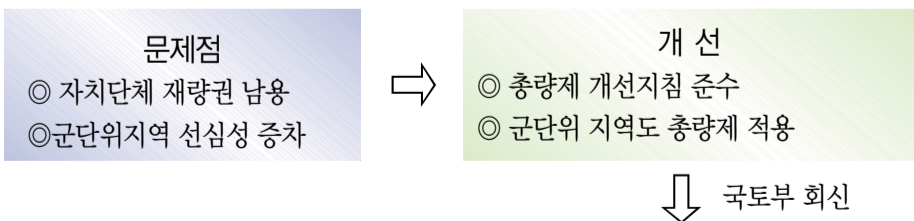
□ 당연합회에서 시·도조합에 시·도「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감차대수가 발생한 지역의 택시 감차보상금 현황자료를 요청한 결과에 따라 1차로 2012년도부터 택시감차보상이 이루어지도록 2012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반드시 감차보상금 380,332 백만 원을 반영시켜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11. 7. 13) 하였다.

□ 시·도별 감차보상금 지원 요청 금액(총액 : 380,332 백만원)

시·도	감차대수	감차보상금	기타
계	5,179	380,332,000,000원	
대전	57	2,940,000,000원	
강원	474	39,414,000,000원	
충북	277	23,427,000,000원	
충남	253	24,280,000,000원	
전북	603	41,999,000,000원	
전남	11	990,000,000원	
경북	1314	98,394,000,000원	
경남	1092	83,008,000,000원	
제주도	1098	65,880,000,000원	

□ 국토해양부는 택시 감차보상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감차규모 및 국비지원 요청이 지연되고 있어 2012년도 정부 예산편성에서 제외 되었으나 금년도에 감차규모 및 지원금액이 마련되면 정부예산편성에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함.

## 7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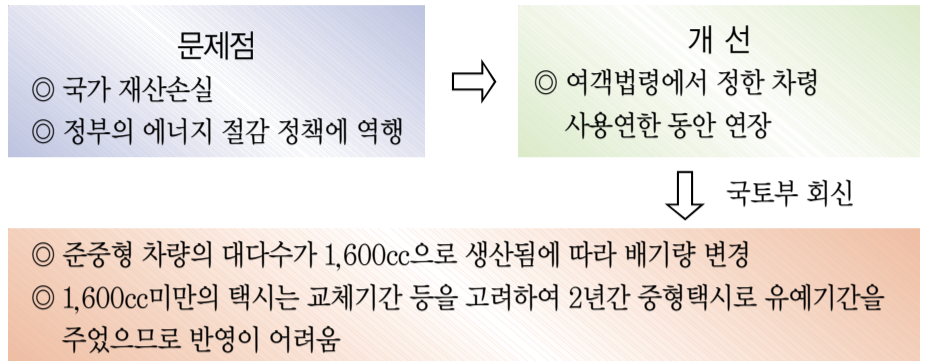


당지자체에서 총량계획 수립시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수립·시행 시달

□ 당연합회는 시·도지사에게 국토해양부가 시달한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대하여 ▼ 시·도지사는 택시 지역별총량제 개선 지침에 따른 산정결과를 준수하여 총량제계획을 수립, ▼ 군단위 지역도 택시 증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따른 총량제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 ▼ 택시 총량제 심의위원회 시

행 취지를 반영하여 구성 위원이 택시업계와 무관한 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원에서 배제하도록 총량제 개선 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 11. 04. 13) 하였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는 시·도지사에게 택시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시달하였다.

## 8 중형택시(1,500cc 이상 1,600cc 미만) 차령제도 개선 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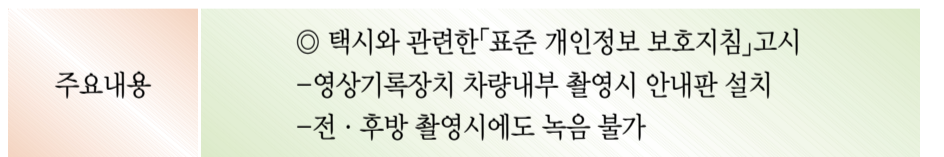
□ 종전에는 중형택시로 사용하여 왔던 중형택시(1,500cc 이상 1,600cc 미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09. 12. 02)으로 중형택시 기준이 1,500cc 이상에서 1,600cc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중형택시(1,500cc 이상 1,600cc 미만)는 금년 12월 2일까지 사용할 수 밖에 없어 법령에서 정한 차령사용연한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 11.7.11) 하였으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 09.12. 02) 부칙 제3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따른 경과 조치)를 면밀히 검토 하여 국토해양부에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11. 10. 24) 하였다.

□ 국토해양부 회신 내용

- 종전에 1,500cc로 생산된 준중형 차량의 대다수가 1,600cc로 생산(아반떼, 세라토, SM3 등)됨에 따라, '09.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소형택시의 기준을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였으며, - 소형택시 기준을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하면서 종전 규정에 따라 중형으로 분류된 1,500cc이상 1,600cc미만의 택시는 교체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간 중형택시로 유예기간을 둔 것이므로 차령만료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회신하다.

## 9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 개인정보 보호법이 ' 11. 9. 30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 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공포( 11. 9. 29) 하였으며, 택시와 관련한「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고시하였다.



## 10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 11. 11. 25.)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내압용기 검사업무 일원화 및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전담기관 운영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0721호, '11. 5. 24 공포)됨에 따라 자동차 내압용기 재검사 재정지원, 자동차 사용제한 손실보상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동차 부품자기인증제 적용대상을 정하는 등 제도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 11 택시운송사업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이석현의원 등 20인 입법발의( 11. 8. 11)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용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li> <li>◎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 · 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li> <li>◎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li> <li>◎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함.</li> </ul>
------	--

□ 윤석용의원 등 10인 입법발의( 11. 11. 03)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구역별로 택시운송사업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면허를 제한하도록 함.</li> <li>◎ 택시의 총량규제에 따른 감차 등의 경우에 보조 또는 용자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li> <li>◎ 택시에 공급하는 석유가스 중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및 석유제품의 판매에 부과되는 석유판매부과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li> <li>◎ 택시 차량 구입 시 부과되는 세금(등록세 · 취득세)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li> <li>◎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택시운송사업자가 친환경자동차를 구입 ·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함.</li> <li>◎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또는 승객을 탑승시켜 주행하는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통행을 허용함.</li> </ul>
------	---

## 12 LPG사용자동차운전자교육 수수료 면제

운전자 교육비 면제	종 전 취업 중인 운전자만	<p style="text-align: center;">개 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중인 운전자</li> <li>◎ 취업이전 교육희망자</li> <li>- 교육접수시 택시운전자격 · 자격 시험 합격증 제출</li> </ul>
------------	----------------	---

□ 정부의 친서민 정책 확대 방침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 11. 04. 27 관련 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7호, ' 11. 2. 11)의 개정을 통해 택시운전자 LPG 교육비 면제 대상을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취업중인 택시운전자만 LPG 교육비를 면제받아 왔으나 취업이전 LPG 교육 이수 희망자도 교육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됨. 교육비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접수 시 택시운전 자격증 또는 자격시험 합격증을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교육비 면제 대상을 취업중인 운수종사자로 한정해 실제 수혜자가 전혀 없는 등 실효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택시업계에서는 LPG 교육 수수료 면제대상을 취업이전 교육이수 희망자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택시업계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용해 이루어졌다.

## 13 6배형화물자동차 대폐차 관련 헌법소원 기각 결정

결정내용	<p>6배형화물자동차 업계에서 제기한 6배형 대 · 폐차 허용관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호위헌확인 헌법소원(2010 헌마482)이 2011년 10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배형화물자동차의 구조요건 승차정원이 3인이하일 것으로 정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호가 2001년11월30 이전에 화물운송사업을 해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하였다.</p>
------	---

□ 당연합회는 전국택시연합회와 공동으로 2010 헌마 482 관련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콜밴기사들의 불법호객행위 및 폭행, 공항영업행위 방해등을 자행하는 관련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제출( 11. 03. 17)하였으며, 헌법재판소는 2010 헌마 482를 심의할 때 불법과 탈법이 더 이상 만연되지 아니 하도록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14 자가용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강력 단속 건의

불법여객운송(강원랜드) → 호객으로 고객유치 단속	⇒	경찰청 · 강원지방경찰청 건의
강원지방경찰청	↓	강원도청 회신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에 적극 협조		

□ 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택시노 · 사 4단체는 강원랜드 하이원 카지노 및 인근 모텔에서는 자가용 약50대, 렌터카 약70~80대, 6배형화물자동차 32대, 모텔 봉고차 약 30대 등 약190여대 등이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업계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불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단속하여 줄 것을 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에 건의( 11. 05. 04)하였던 결과 강원지방경찰청 및 강원도로부터 불법여객운송행위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 강원지방경찰청 회신( 11. 05. 18)
- 불법여객운송행위 위반차량에 대하여는 강원도로 이첩하여 처리 및 결과를 회신토록 조치하였고,
- 지자체에서 합동단속 요청시 경찰에서 적극 협조하여 택시업계의 보호와 운송질서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으로 불법여객운송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 강원도 불법여객운송행위 행정처분 결과 회신( 11. 06. 3)
- 처분관청 : 정선군청
- 처분내역 : 불법여객운송행위 6건 각각 영업정지10일

## 15 아파트 셔틀버스 자가용 유상행위 근절 건의

□ 당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전국택시연합회, 전국버스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연합회,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등 공동명의로 아파트 셔틀버스 자가용 유상행위 관련 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 11. 8. 25) 하였다.

<p style="text-align: center;">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파트 셔틀버스는 버스 운영비를 아파트 관리비용에 포함시켜 징수하고 운행</li> <li>◎ 법원으로부터 적법하다는 판결로 셔틀버스 증가 추세</li> </ul>	⇒	<p style="text-align: center;">건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에서 공동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유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 금지</li> </ul>
--	---	--

## 16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교통안전장치 의무화 차량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택시 등) 등</li> <li>- 2011년 8월 20일 시행</li> </ul>
----------------------------	---	---

□ 제299회 국회(임시회) 본회에서 의결(2011년 4월 29일)하고, 2011년 5월 19일 공포되었으며, 8월 20일 시행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304회( 11. 12. 31)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 버스, 화물 등 업계에 대한 지원금 100억원이 통과 되었다.

## 17 교통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주요내용** ◎ 사업용자동차에 안전장치(디지털 운행기록계 등)를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착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가능

□ 사업용자동차에 안전장치(디지털 운행기록계 등)부착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주요내용으로 공포( 11. 8. 19)하였으며, 운행기록장치의 장착비용 적용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발의

□ 홍준표의원 등 11인 입법발의( 11. 04. 1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홍준표의원 발의**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전용차로에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한하여 택시의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여 수익개선에 기여하고,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것이다.

○ 당연합회는 제303회 국회 정기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었기에 행정안전위원장 및 법안심사소위원에게 통과를 건의(11.17)하였고,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11.21)에서 심사하였으나 경찰청에 자동차노련 등 반대의견제출로 계속 심사로 의결하여 계류 중에 있다.

###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추진

**개인택시용 LPG부탄 구입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 박병석의원 안은 모든 택시(법인·개인)의 LPG 부탄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원진의원 안은 LPG부탄 외에 차량구입비,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현행(제106호제1항)	양승조의원 안	박병석의원 안	조원진의원 안
□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신설>	□ 면제대상 추가 ○ 개인택시용 LPG 부탄 구입비 ○ 일몰기한 : 2013년 12월 31일	□ 면제대상 추가 ○ 택시용 LPG부탄구입비(개인·법인포함) ○ 일몰기한 : 2014년 12월 31일	□ 면제대상 추가 ○ 개인택시용 LPG 부탄구입비, 차량구입비 및 차량유지비 ○ 일몰기한 : 2014년 12월 31일

□ 개인택시업계가 현재 공급과잉과 수요 감소로 인하여 유례없는 경영난과 수입격감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택시연료(LPG부탄)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차량구입비 및 유지비의 경감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추진을 위하여 18대 국회에서 상기 3인의 국회의원을 통해 입법발의를 했으나 국회파행 등으로 정상적인 국회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조세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중에 있다. 연합회에서는 금년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관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전개할 계획이다.

### 20 LPG(부탄) 할당관세 0% '12. 06. 30일까지 유지

□ LPG(부탄) 수입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LPG가격인상을 억제하고자 당 연합회를 포함한 택시 4개 단체가 LPG와 LPG제조용 원유에 부과되는 수입관세를 폐지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11. 5. 24일부터' 11. 12. 31까지 할당관세가 0%로 적용을 받아 시행되었다. 동절기 LPG수요증가와 환율상승 및 국제 LPG가격상승 등으로 2012년도에도 국내 LPG가격상승이 전망되고 있어 당 연합회를 포함한 택시 4개 단체에서 2012년도에도 할당관세를 0%로 유지해 주도록 국회와 정부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1. 12. 20일 국무회의에서 할당관세 적용규정안이 확정되어' 12. 1. 1일부터 6. 30일까지 LPG 할당관세 0% 적용이 확정되어 금년 상반기의 국내 LPG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1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적극 대응

□ 한국교통연구원은 수행중인 <경형택시 활성화 방안> 연구 관련 세미나를 '11. 12. 02 과천시민회관 2층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발표 : 강상욱(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 사회자 박종욱(교통신문 편집국장)
- 참석자 : 김유중(전국개인택시조합 전무), 홍명호(전국택시사업조합 전무), 이호기(영일운수(주) 전무), 임승운(전국택시노련 정책국장), 김성재(민주택시연맹 정책국장), 신종원(YMCA 시민운동본부 부장), 송재룡(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한종학(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한국교통연구원 교통경제물류본부장), 권석필(성남시청 교통지도과장), 김용석(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과장), 김학원(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사무관) 등

□ 당연합회는 경형택시가 1일 24시간 운행 할 경우 에너지 절약 및 배출가스 저감 목적이 퇴색되고, 택시노·사가 반대, 경형택시 운전자의 피로누적 해결 방안 부제 등을 이유로 경형택시 활성화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

### 22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사업 방안에 적극 대응

□ 한국교통연구원은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시범사업 방안> 연구 관련 세미나를 '11. 12. 27 국토해양부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하였다.

- 발표 : 박상우(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 토론자 :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최병길 사무관, 명지대 금기정 교수, 연세대학교 김진태 교수, 서울시립연구원 김원로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김도경 교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무이사, 전국버스연합회, 전라북도도청, 대전시청, 국토해양부교통안전복지과 등

□ 당연합회는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목적 및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형택시 등 택시업종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방안을 제시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 2012년도 연합회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의결

2011년도 연합회 제8회 이사회 및 임시총회가 11.30일에 개최되어 2012년도 연합회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세 입 (단위 : 천원)

항 목	2012년 예산
세 입	1,968,965
회 비	1,667,965
이월금	300,000
기타수입	1,000

○ 세 출 (단위 : 천원)

1. 사무비	934,735
11. 인건비	593,373
· 급 료	313,952
· 상여금	191,228
· 수 당	88,192
12. 물건비	341,361
· 여 비	4,680
· 공공요금	12,648
· 제세공과금	5,090
· 차량유지비	47,940
· 수송비	15,300
· 수수료수선비	5,460
· 시설관리유지비	36,000
· 복리후생비	214,243

2. 사업비	766,570
21. 물건비	217,120
· 여 비	46,100
· 수송비	115,020
· 광고선전비	56,000
22. 판공비	313,200
· 기관운영판공비	54,000
· 특별판공비	187,200
· 홍보활동비	72,000
23. 이용료	30,000
· 수수료	30,000
24. 선진화지원비	206,250
· 회의비	155,350
· 사회복지비	10,000
· 포상비	40,900
3. 재산취득비	25,000
31. 재산취득비	25,000
4. 분담금	17,730
41. 분담금	17,730
· 교통개발연구원 분담금	11,130
· 단체회비분담금	3,600
· LPG가격공동대책위분담금	3,000
5. 적립금	120,000
51. 퇴직적립금	120,000
6. 예비비	104,929
61. 예비비	104,929

기본 목표

- 1.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 2. 세제 및 경영여건개선
- 3.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
- 4. 단체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1 제도개선 및 규제완화

- 택시감차보상제도 개선 및 예산 확보
  - 택시감차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규정마련
  - 국토해양부에 지역별 총량제 결과에 따른 예산확보 건의
-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실태파악 및 개선
  - 총량제 실시 현황 파악
  - 총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 개선
-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포함 등
  - 교통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도록 택시연합회 및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대체입법 등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택시포함 추진
- 버스전용차로 택시통행 허용 추진
  - 고속도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 허용
  - 시내버스전용차로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가변차로에 한하여 승객이 탑승한 경우 허용
- 차량청결상태 등 확인점검제도 위탁업무로 전환 추진
  -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차량 청결상태 등에 대한 확인점검제도를 위탁업무로 추진
- 개인택시 대리운전제도 개선추진
  - 조합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리운전 허용
- 개인택시 운전경력 관리제도 개선
  - 조합의 운전경력발급 근거마련
- 전세버스 규제완화에 대한 대책
  - 산업단지공동셔틀버스 등 전세버스의 영업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에 적극대처
  - 전세버스의 예시적 노선운행 허용 조항을 제한적·예외적 조항으로 명확히 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대여자동차 규제완화 및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 추진
  - 대여자동차의 가맹사업제도 및 운전자 알선 허용 등에 대한 대책추진
  - 국토해양부에 불법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건의
-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관련 대책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적극건의
- 택시좌석안전띠 착용의무화제도 적극 대응

- 택시는 도로여건에 따라 택시좌석안전띠 의무착용 대상에서 제외 건의
- 자가용 대리운전업 및 운전자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적극추진
  - 대리운전의 자동차 범위를 비사업 승용자동차로 제한
  - 대리운전자의 자격요건 강화
  - 대리운전자격시험 및 대리운전 교육제도 도입
  - 개인택시사업자의 자가용 대리운전 참여 추진

2 세제 및 경영여건개선

- 신규개인택시 양도·양수 및 상속금지제도 개선 추진
  - 2009년 11월 28일부터 신규면허공고 절차에 따른 신규개인택시도 종전의 개인택시면허와 같이 양도·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도록 추진
- 택시연료(LPG부탄)에 대한 세제지원 일몰연장
  - 유가보조금(2012. 6. 30까지) 및 개별소비세, 교육세(2012. 12. 31까지)의 일몰연장
- 택시연료(LPG부탄) 가격안정화 추진
  - 국제가격(CIF)과 환율에 의한 가격결정 및 원가내역 서 등 공개
  - LPG 할당관세 영세율 일몰기간 연장 추진
  - 수입 LPG와 국내정제 LPG에 대한 가격차별화
  - 수입사·정유사의 택시연료 담합행위 단호 대처
  - 수입사의 중소기업 육성을 유도하여 자율경쟁체제 도입
  - 기타 택시 및 노사 공동대응 활동 강화
- LPG 공급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손해배상 청구금액 입증을 위한 자료확보
  - LPG 공급사의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 택시차량 취득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
  -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택시차량 취득세 감면기간 연장 추진
  - 택시차량의 취득세 전액 면제 추진
- 택시연료 유종 다양화 추진
  - CNG, 경유, 휘발유 등으로 택시연료를 다양화하여 유종의 선택권 부여
  - 다양한 유종에 대해서 세금면제 및 유가보조금지원 추진
- 친환경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등) 도입검토
  - 하이브리드 택시 시험운행 결과 모니터링(공동시행 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 친환경차량의 택시도입을 위한 여건조성 및 정부지원 방안 마련 추진
- 택시운임·요금의 할증범위 확대 추진
  - 승차인원 3인 이상부터 1인당 추가승객운임 할증적용(6세미만제외)
  - 주말 및 공휴일 할증
- 뱅형화물자동차, 지입·도급차량, 자가용, 렌터카

- 등 불법여객운송행위 단속기구 상설화
  - 민·관 합동 단속기구 상설화를 위한 기구신설
  - 불법여객운송행위 근절대책 강구

-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건의
  - “재래시장 가맹점 수수료” 1.6% ~ 1.8% 수준으로 건의

3 서비스 향상 및 교통안전활동 강화

- 교통사고예방활동 및 서비스개선유도
  - 정지선 지키기 운동전개 및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 친절운동전개 및 운전자 제복착용 적극유도
  - 외국인에 대한 부당요금 징수행위 금지 교육
- 콜 시스템을 통한 ‘브랜드 택시’ 확대유도
  - 콜 장비 등 각종 서비스기기 설치에 따른 정부지원 건의
  - 조합원의 가맹점 가입 적극유도
  - 택시 예약문화 유도로 배회영업 지양
- 택시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정지원 및 피해구제제도 확립
  - 차량의 서비스 및 시설개선을 위한 장비(영수증발급기, 외국어 동시통역 시스템, 신용카드결제기 등)의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지원건의
  - 택시차량의 품질 및 안전문제로 인한 분쟁발생시 리콜 등 피해보상을 위한 대응책 강구
- 교통안전제도 규제 개선
  - 규제관련 입법안에 대한 운수단체 공동대응
  - 불합리한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개선 추진

4 단체기능 및 홍보활동 강화

- 단체 활성화
  - 사기양양을 위한 모범조합원 및 임·직원 포상(창립기념일, 육운의 날, 기타)
  - 위탁업무의 범위 확대 추진
  - 교통안전공단의 운수종사자 현황 정보관리시스템 운용방안 개선
- 홍보 및 행사
  - 마스크 홍보를 통한 개인택시 이미지개선 홍보활동 강화
  - 연합회 신문제작 배포를 통하여 연합회 사업추진실적 홍보 및 정보제공(년4회 발간)
  - 자연보호행사 및 체육행사 실시
  - 육운의 날 행사 적극 참여로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과 건전한 교통문화 창달
  - 연합회 홈페이지 운영
- 사회복지사업
  - 고아원, 군경 및 불우이웃돕기
- 정부의 경제대책에 적극 협조
  - 자가용 요일제 운행 적극 동참
  - 사무실 에너지 절약
  - 사무용품 절약 및 재활용

www.klpg.or.kr



#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친환경 LPG자동차 시대를 열어갑니다 🦋

경제성, 연비, 성능...기술과 에너지의 한계를 뛰어넘는  
세계 최고 엔진기술의 대한민국 친환경 LPG자동차 -  
우리의 미래, 우리의 에너지경쟁력을 키워줍니다



**Clean LPG**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연료 LPG는  
깨끗한 하늘을 만들어 사람과 환경을 지켜줍니다

**Power LPG**

세계 최고의 엔진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힘과 연비, 성능의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Economy LPG**

휘발유의 절반 수준인 연료비와 향상된 연비로  
고유가 시대를 이기는 큰 힘이 됩니다



# 대전조합을 가다

## “9억 3천만원 대전시 예산지원 확보 제2브랜드 택시 시동”

소통의 리더십이 빛나는 대전시조합



대전조합 김성우 이사장

대전시로부터 각종 보조금 지원을 받아 내기 위해 노력하는 이사장의 역할은 열악한 운송환경에서 애쓰는 조합원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한 목표이고 실천일 것입니다” 김이사장은 조합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조합원을 편하게 해주려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한다.

### ◆ 제2브랜드 택시 추진

2007년 7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이사장은 안전하고 친절한 개인택시라는 잊점을 내세워 지하철, 시내버스, 법인택시와 차별화하기 위한 승부수로 브랜드 택시를 착안했다.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기 위해 부지런히 대전시청에 출입했다.

시장을 만나 브랜드 택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의회 의원을 만나서는 예산편성을 설득하는 양면작전을 벌였다.

끈질긴 노력끝에 2008년 대전시청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5489대 중 1300대를 선발해 ‘양반콜’이라는 브랜드로 콜택시를 발족시켰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한 브랜드 택시는 택시승객으로부터 신뢰를 쌓아갔다.

많지는 않지만 일반 택시보다 운송수입이 늘었고 무엇보다도 개인택시사업자가 운영하는 양반콜은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호평을 받는데 성공했다. 브랜드 택시로 차별화를 시도하려는 목표가 성공되었다.

김이사장은 ‘양반콜’ 성공을 발판으로 제2의 브랜드 택시 추진에 골몰했다.

양반콜의 성공사례는 대전시를 움직이는 지렛대가 됐다. 재선 첫해부터 1300대를 목표로 신청한 브랜드 택시 추진예산은 2011년 12월 16일 시의회를 통과되어 대전시 신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올해 안에 제2브랜드 택시를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양반콜을 확대하는 방법과 별도의 브랜드로 제2브랜드 택시를 출범시켜 선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방법 등을 놓고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아볼 생각입니다.

5489대 조합택시 중 47%에 해당하는 2600대로 늘리는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둔 김이사장머리에는 어느새 브랜드 택시의 성공이 예감되어 보인다.

### ◆ 직영충전소 이용률 80%대 넘어

지난 2000년 부터 시작한 충전소 직영사업은 안영 제1충전소, 상서 제2충전소, 동대전 제3충전소 등으로 순조롭게 확대되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이용률은 20대로 저조했다. 복지충전소라는 당초 사업목표가 조합원들로부터 외면당하자 조합은 시중충전소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조합원을 상대로 홍보에 나섰다.

LPG의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조합원을 위해 쓰는 조합원이 충전소 주인이 되는 직영충전소를 만들어갔다.

이런 노력으로 조합충전소 이용을 기피하던 조합원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20%대에 머물던 조합원들의 직영충전소 이용률은 80%대로 높아졌다.

직영충전소 경영이 활성화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들에게는 L당 60원씩을 적립하여 매달 지급하고 있고 분기별로 일정량 이상을 충전하는 조합원을 선정해 쌀, 휴지 생필품등을 주는 이벤트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대전광역시는 우리나라 교통 중심지다. 또한 제2정부청사가 있는 행정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5천4백89명의 조합원과 함께 대전광역시의 택시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조합은 쉽게 진화하는 역동적인 개인택시사업조합이다.

특히 대전조합은 2007년 7대 이사장에 취임한 김성우 현 이사장이 4년 임기를 마치고 제8대 이사장에 재선되면서 안정적이고 탄력있는 조합경영이 가동되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는 중흥기를 맞고 있다.

“조합의 가장 큰 경영 목표는 운송 현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조합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김이사장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한다.

“직영충전소를 경영하고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고 장애인 택시를 운영하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전 조합  
복지 충전소



▲ 동대전 충전소



▲ 안영 충전소

대전조합의 직영충전소 복지사업은 자가용 고객에게까지 판매가 확대되어 연간매출이 347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탄탄한 경영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전조합 직영충전소는 조합원들의 LPG 수익사업으로 까지 발전되고 있다.

◆ 장애인 콜택시 사업

대전조합은 전국 최초로 장애인을 상대로한 콜택시 사업을 실현했다.

지난 2009년 15대로 출발한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현재는 55대 규모로 확대되었다.

대전시로부터 복지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와 운송계약을 체결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 콜택시 사업은 조합에서 운영하는 조합택시와 같은 3부제로 운영, 20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대당 총 운송수입도 250만원 정도로 조합원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용고객은 시각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이 전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택시를 차량구조 변경하지 않는 편리함도 있다.

또한 조합택시 중 현대 55대가 장애인 전용차량으로 운행되고 있기 때문에 감차효과가 발생하여 조합택시의 수입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택시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어내고 있다.

◆ 명분만 있으면 보조금은 OK

택시는 운수사업법에 고급교통수단으로 분류되고 있는 법적 근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이사장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제한을 뛰어 넘기 위해 먼저 재정지원을 요청할 명분발굴에 주력한다.

그리고 명분이 발견되면 명분을 내세워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을 요청한다.

대전시가 현금으로만 받던 택시 요금을 개인택시도 카드 결제에 참여하여줄 것을 요청해왔다.

김이사장은 택시요금을 카드결제로 처리할테니 카드 결제 때 발생하는 통신비를 대전시가 지원해주도록 되받아줬다.

결국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 끝에 2011년 7월 1일부터 카드결제 참여 조합원 모두에게 대당 월 5500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결정을 받아냈다.

조합원이 받는 연간 통신비 지원 혜택은 3억 5천만원이나 된다.

카드수수료도 전액 대전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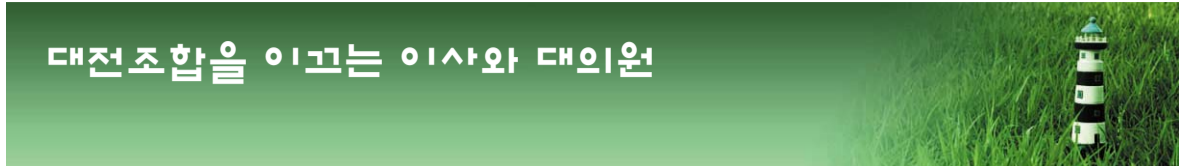
또한 '브랜드 택시를 추진하면서 대당 1만9천원까지(기본료 1만원+300원×30콜) 콜택시에 대한 성공수수료도 시에 지원을 요청 관철시켜 조합원들은 연간 7억3천만원의 큰돈을 혜택받고 있다.

◆ 소통으로 화합 일궈

대전조합의 가장 큰 자랑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조합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라고 한다.

김성우 이사장은 이사장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의례히 불거지는 조합원들의 분열을 보면서 소모적인 대립과 반목을 해소시키기로 작정했다.

조합원과의 소통의 길을 터놓기 위해 조합사무실은 물론이고 3개 직영충전소 곳곳에 조합원들의 눈길이 쉽게 닿을



정승직 전무 김천겸 감사 박재홍 감사 강구현 이사 박춘실 이사



이남희 이사 이석균 이사 이성우 이사 이영노 이사 민경립 이사



차영식 이사 강구일 대의원 강태화 대의원 권만옥 대의원 김군수 대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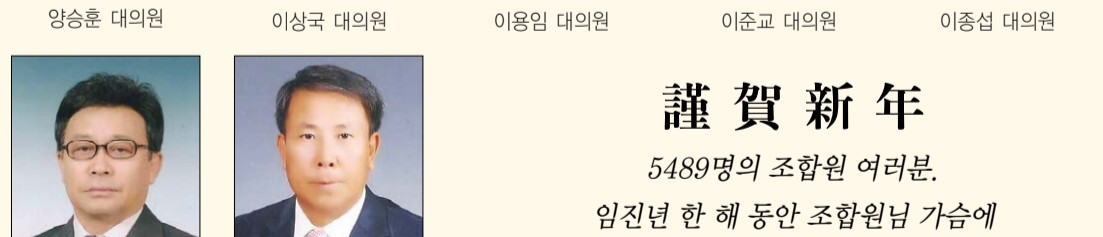
김용봉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창수 대의원 김성호 대의원 김흥렬 대의원



류근목 대의원 유명현 대의원 유병관 대의원 윤용석 대의원 윤백수 대의원



양승훈 대의원 이상국 대의원 이용임 대의원 이준교 대의원 이종섭 대의원



임종선 대의원 최병국 대의원

謹賀新年

5489명의 조합원 여러분.  
임진년 한 해 동안 조합원님 가슴에  
후를 품고 힘차게 달리십시오.

-이사장 김성우-

만한 곳에 이사장의 핸드폰 번호를 붙여 놓고 공지했다.

또한 이사장실에는 커피 자판기를 설치해 놓고 찾아오는 조합원에게만은 이사장이 손수 커피를 대접했다.

“여직원에게 커피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여직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하

지만 조합원들에게 친근함을 보이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김이사장의 설명이다.

조합원을 대할때마다 입으로 이야기 하지 않고 가슴으로 이야기 한다는 김이사장의 소통의 리더십은 대전조합 5489명의 조합원들의 화합이 두터워지게 만들고 있다.

<김관술 기자>



# 강원조합을 가다

## 단일번호로 강원도를 통하는 '광역위성콜' 추진

10년 동안 공제 흑자 진기록 보유



강원조합 윤재일 이사장

화 추진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택시 요금 현실화 ▲도지사와 연 2회 간담회 개최 ▲택시 감차사업의 원활한 추진 ▲불법여객 운송 행위 단속 요망 ▲택시 증차억제 등 8개 항목을 제시했다.

한편 강원도는 위성콜 카드 결제기 확대 설치, 택시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 지원, 감차사업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불법운송행위 단속도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다.

### ◆ 광역 위성콜 추진

강원조합은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원주지부 소속 택시 600대와 강릉시지부 소속 택시 695대를 브랜드 택시로 운영하고 있다.

원주시 브랜드 택시는 법인택시 400대와 공동으로 도비 2억4천만원, 시비 7억8천1백만원을 지원받아 위성콜 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카드결제기 등 차량용 장비를 장착한 브랜드 택시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인택시 695대를 브랜드 택시로 출범시킨 강릉지부도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지원받아 법인택시 691대와 합동으로 2008년부터 택시의 외부 색채디자인까지 교체하고 브랜드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18개 시·군지부 가운데 10개군 지부는 조합택시가 100대 미만으로 영세성을 띄고 있어 독자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우리조합 산하에는 18개 시·군지부가 있습니다. 18개 시·군지부중에는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시지부는 조합원수가 1천 1백여 명에서 7백명 이상이어서 브랜드 택시 등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본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나머지 지부는 협동체제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브랜드 택시를 추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지부 가운데

는 조합원수가 1백명 미만인 지역이 10개 지부나 될 정도로 조합원이 넓은 면적에 산재하여 있지요. 그래서 착안한 것이 도내 전역을 단일 번호를 사용하는 광역 위성콜 시스템입니다” 윤재일 이사장은 광역콜 추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전 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콜을 추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런 광역콜을 추진하는 타이밍이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이라고 생각되어 지부장들과 함께 도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윤이사장은 말한다.

### ◆ LPG충전사업

강원조합은 택시 운송 사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인 LPG충전소를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706명으로 직영충전소를 운영하기에는 힘겨운 여건이지만 강릉시 지부가 1999년 10월 21일 직영충전소를 개소했다.

1048평의 넓다란 대지위에 충전소, 차량정비소, 지부 사무실까지 함께 입주하여 조합원들에게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합원수가 985명인 춘천지부도 1999년 1월 복지충전소를 가동했다.

춘천지부는 12년 동안 운영하던 동내면 직영충전소가 협소하여 2011년 2월 삼천동에 1568평의 부지를 매입 이전하면서 지부사무실, 경정비센터도 함께 운영하고 있고 조합원의 충전소 이용률도 90%대를 육박할 정도로 활발하다.

조합원수가 384대 밖에 되지 않는 속초지부도 2002년 9월에 직영충전소를 개소했다.

2600평의 대지에 지부사무실, 정비공장까지 동시에 입주한 속초충전소는 일반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강원도는 2018년 평창군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시 지부를 비롯 도내 18개 지부를 중심으로 4522명의 조합원이 운송사업을 펼치고 있는 강원조합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선진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윤재일 이사장은 지난해 관내 18개 시·군 지부장과 함께 최문순 도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 운송 발전방향을 건의하고 격의 없는 토론을 하며 새로운 2012년을 준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브랜드 택시 추진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예산 조속한 반영 ▲교통운송정책 선진



▲ 강릉 충전소



▲ 원주 충전소

강릉 조합 복지 충전소





▲ 춘천 충전소



▲ 속초 충전소

에 위치하고 있어 조합원이 충전하는 양보다 일반자동차 고객에 판매하는 양이 많아 연매출이 41억원으로 충전소 경영 수익금으로 매년 조합원에 배당금을 지급할 정도로 불리한 여건을 극복하고 성공한 복지충전소로 꼽힌다.

조합원수가 1천 1백 7명으로 18개 지부 중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원주지부는 2007년 5월에 직영충전소를 개업했다. 강원조합은 4개 지역에서 복지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 10년동안 흑자행진 하는 공제

강원도는 산간지방이라는 도로여건 때문에 안전운전이 쉽지 않은 지역이다. 그런데도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예기치 않게도 사망사고가 7명이나 발생해 10년 동안에 처음으로 7억 4천만원의 적자를 냈지요. 그런데도 누적 흑자는 25억원으로 공제 운영에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은 조합원들이 불리한 교통여건을 늘 생각하면서 조심운전을 하기 때문입니다” 윤이사장은 흑자행진의 공을 조합원에게 돌린다.

부지부장을 비롯 11명의 소수인력으로 운영하는 강원지부는 직할지부 이외에 원주사무소, 영동사무소(강릉권), 속초사무소(속초권), 태백사무소(태백권)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 교통사고 현장 접근성을 높여 교통사고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킨 신속한 공제 업무가 흑자공제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강원지부는 2012년에는 지난해의 적자를 최대한 보전하고 흑자기조를 증진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예방활동 강화 ▲분담금 수익증대를 위한 고액담보 계약유도 ▲공제서비스 강화 등 3대 중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김관술 기자〉

강원조합을 이끄는 임원진

							
박상원 대의원 (이사)	강문석 대의원 (이사)	박한규 대의원 (이사)	허정수 대의원 (이사)	이필섭 대의원 (이사)			
							
조필선 대의원 (이사)	원재목 대의원 (이사)	최대현 대의원 (이사)	황규찬 대의원 (이사)	김동욱 대의원 (이사)			
							
공양진 대의원 (이사)	최종림 대의원 (이사)	서철원 대의원 (이사)	김주원 대의원 (이사)	이원희 대의원 (이사)			
							
권혁일 대의원 (이사)	이남규 대의원 (이사)	정관교 대의원 (이사)	최중복 대의원 (이사)	최종관 대의원 (이사)			
							
윤병문 대의원	석인호 대의원 (이사)	김용준 대의원 (이사)	안병보 대의원 (이사)	최정수 대의원 (이사)	전두표 대의원 (이사)	김진석 대의원 (이사)	김인호 대의원 (이사)
							
고홍호 대의원	양승만 대의원 (이사)	조규록 대의원 (이사)	신도선 대의원	김종완 대의원 (이사)	김은하 대의원 (이사)	이성기 대의원 (이사)	



동호회 탐방

강원조합 속초지부 FC속초 일레븐 조기축구회

“축구로 익힌 페어 플레이 정신  
운전대 잡고 친절운전 실천”

설악산과 동해 바다가 품은 도시 속초, 강원조합 속초 지부를 대표하는 FC속초 일레븐(약칭FC팀) 조기 축구회원들은 푸른 자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축구로 심신을 단련하고 화합을 키우고 있다.

4부제로 운영하는 속초지부 2조 조합원 70명 중 40명이 참여하는 FC팀은 30년 전통을 가진 강원조합내 명문 축구팀이다.

FC팀 정관은 조기축구회 설립 목적으로 “축구를 통하여 지친몸과 마음을 달래며 체력단련 및 선후배 간 생활사의 고달픔을 토론, 위로하고 친목도모 애경사를 함께 함에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 는 않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호회 가입조건도 회비적립금이 100만 이상일 때는 입회비를 10만원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런데도 2조 회원 70명 중 과반수가 넘는 40여명이 가입되어 있는 것은 30년 전통의 명성 때문”이라고 김창국 회장은 설명한다.

2009년에 이어 2011년 두차례나 2년 임기의 회장을 맡고 있는 김회장은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46세로 구성된 아마추어 팀이지만 휴조때마다 벌이는 경기는 심판의 주도 아래 엄격하게 진행, 진정한 축구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자랑한다.

40여 명의 회원중에는 이제 60대에 접어든 황동우, 김재덕 창립회원에서부터 35세의 젊은 회원이 뭉쳐 있어 어느 동호회보다 회원 간의 화합이 두텁다.

회원들의 월회비는 1만5000원으로 운영되지만 전용으로 쓰고 있는 속초공설운동장 인조축구장 사용료가 평일에는 3만원, 주말이면 5만원이어서 운동장 사용료를 위한 게임비로 월 1만원 씩을 별도로 거출한다.

FC회원들은 4일에 한 번씩 한 달이면 7회 이상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11명씩 나누어 경기를 하는데도 흔한 감기조차 걸리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다고 자랑한다.

또한 FC동호회는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속초시장기 쟁탈 속초시내 직장대항 축구대회에 속초지부를 대표하여 출전하고 있고 봄·가을 2회씩 춘천지부 가로수 팀과 자매 결연을 맺고 봄에는 춘천에서 가을에는 속초에서 정례 친선경기를 갖는다.

특히 속초시 직장대항 축구 경기에서는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페어플레이 상을 받았다.

“페어플레이상은 경기규칙을 잘 지키고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신사적으로 경기를 한 팀에게 주는 상입니다. 개인택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친절운전·안전운전을 하는 교통수단이어서 우리에게는 우승보다 더 값진 상이지요” 최정수 속초지부장의 설명이다.

FC팀에는 1급 심판자격증을 갖고 있는 황광찬 코치와 이광수 감독이 직접 심판을 보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회원들도 휴조때마다 한 팀에 11명씩 선발 전·후



반 45분씩 프로팀과 똑같은 방법으로 경기를 한다.

직계존속은 물론 방계혈족까지도 애경사 때에는 30만~40만씩 경조비를 지급 친목을 도모하여 형제 처럼 우의를 다지는 것도 FC팀의 자랑이다.

봄·가을 춘천시와 속초시를 오고가며 열리는 춘천지부 가로수팀과의 친선경기 때에는 회원가족이 함께 즐거운 나들이를 체험하고 1년에 1회 씩은 축구를 접고 회원 모두가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호연지기를 느낀다.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회장 김창국(010-5371-0673) ◇ 사무국장 오은석(010-3075-8738) ◇ 감독 이광수(010-4400-9075) ◇ 코치 황광찬(017-373-9588) ◇ 고문 김재덕, 황선학, 황동욱, 한선구

〈글 김관술〉



▲ 페어플레이의 주인공 속초 2조 FC회원들



▲ 김창국 회장

# “보은지부 대추농장 경영, 복지사업 실현”



연합회 신문은 2011년 10월 15일자로 발행한 가을호 5면에 '대추나무 농장을 경영하는 보은지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택시 조합에서 운수 관련 사업이 아닌 농장 경영으로 조합원의 복지사업을 추진하려는 충북조합 보은지부 사례는 농촌에 소재한 지부(조합)의 복지사업 아이디어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보은지부의 대추농장 경영사례를 신년호에 심층 취재 보도합니다. (편집자註)

우리 연합회 산하에는 농촌에 있는 군단위 지부(조합)가 대단히 많다. 보은지부도 그중 하나다.

기자는 충북조합 보은지부의 대추농장 성공사례를 심층취재 하기 위해 지난 12월 21일 보은지부를 방문했다.

대추는 보은군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보은군은 관내 농가가 재배한

대추 판매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홍보하고 있고 가을이면 대추 축제를 열고 판촉활동을 지원해준다.

또한 대추재배 농가에는 비닐하우스 시설 공사비는 물론이고 영농자금도 아낌없이 지원해준다.

“조합원들이 택시운송업을 하는 보은지부가 대추농장 경영을 착안한 것도 군청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였다”고 정일대 보은 지부장은 말한다.

보은지부는 조합원이 93명으로 충북 조합 관내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부이다.

대추농장 경영을 앞장서 추진한 정일대 지부장은 3대째 지부장을 맡고 있다.

8년 전에 지부장을 맡고 보니 지부사무실이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래도 군단위 지부인데 자체 사무실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끝에 사무실 신축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출마하여 당선된 정대일 지부장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사무실을 건축하려 했으나 지부가 보유한 현금은 3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돈으로는 겨우 사무실을 건축할 땅 밖에 살 수 없는 돈이었다. 그렇다고 이 돈을 땅을 사기 위해 쓰고 나면 건축비가 막막했다.

정지부장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이 개인적으로 평당 10만원씩 매입한 보은읍 평리 대지 520평중 200평을 떼어 지부에 외상으로 내놓고 군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그런데 보은군은 주공아파트 건설 예정지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면서 주공이 매입하겠다고 밝혔다.

주공에 이 땅을 평당 58만원씩 팔았다. 외상으로 산 땅이지만 그 당시는 큰 돈이었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3천 4백만원으로 출발한 조합 재정이 1억 3천만원으로 불었다.

2005년 현재의 지부 사무실을 마련하고도 8천여만원의 여유자금이 생겼다.

주성대학교에서 부동산 학과를 졸업한 정일대 지부장은 현금보다 땅에 묻어 주자고 조합원을 설득 남은 돈으로 쓸모없이 버려진 땅을 싼값에 구입했다.

정지부장은 이 땅에 보은군이 장려하는 대추농장을 만들기 위해 잡초를 뽑아내고

배수로를 만들고 과수원을 만들었다.

1천700평 가운데 1천 평에는 군으로부터 3천700만원의 시설 지원 자금을 받아 200평 짜리 비닐하우스 5개 동을 만들고 한 주에 3천 원씩 800주를 사다 대추나무를 심었다.

3년째 성장하고 있는 대추나무는 2010년에는 첫 수확의 감격을 누렸다. 아직은 성장이 부진하여 내년쯤이나 본격적인 수확을 전망한다. 연간 수익금을 5천만원으로 잡고 있는 정일대 지부장은 800주의 대추나무를 조합원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어 책임 재배를 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다.

운송수입이 아닌 농장 경영을 통해 복지 사업을 개척하려는 보은지부의 노력은 도단위 조합 산하에 있는 농촌지부(조합)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 오십견 예방 체조



하나, 손을 등 뒤로 돌려서 각지를 끼고 목을 천천히 돌린다.



둘, 각지 긴 손을 밀로 당기면서 목을 앞으로 숙였다가 뒤로 젖힌다.



셋, 각지 긴 손을 등 위로 들어 올린다.



넷, 그림의 자세에서 오른손을 왼쪽으로 당기면서 머리를 좌측으로 젖힌다.



다섯, 오른손으로 왼쪽 팔꿈치를 잡아 아래로 당긴다.



여섯, 각지 긴 손을 등 뒤로 돌리면서 위로 들어올린다.



일곱, 각지 긴 손의 손바닥을 앞으로 향한 채 팔을 쭉 뻗는다.



여덟, 각지 긴 손을 머리 위로 쭉 뻗으며 뒤로 젖힌다.



아홉,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어깨를 당겨 올린 후 힘을 뺀다.



열, 손 끝이 무릎 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로 엎드려 천천히 허리를 낮춘다.



열하나, 팔굽을 굽힌 채 바닥에 엎드린다. 얼굴을 좌우로 돌려준다.



열둘,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머리 뒤에 두고 머리를 밑으로 당겨 목을 편다.

**HYUNDAI**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EXPO 2012  
YEOSU KOREA  
www.expo2012.kr  
**HYUNDAI**  
Official Global Partner of EXPO 2012 Yeosu Korea



**5G  
GRANDEUR  
TAXI**



**SONATA TAXI**

**SONATA TAXI**  
TRANSFORM

세계가 인정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국민택시

# 현대자동차 TAXI

안전성과 성능은 물론 경제적인 연비와 편안한 승차감까지!  
현대자동차 택시가 사랑받는 이유는 탈수록 분명해집니다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긴급봉사반 원콜서비스 080-600-6000 \*그랜저 택시▶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3.0 LP : 8.9km/l / CO2 배출량 : 199g/km / 배기량 : 2,999cc / 공차중량 : 1,620kg / 자동6단(4등급) \*쏘나타 택시▶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LP(AT) : 10.9km/l / CO2 배출량 : 169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445kg / 자동6단(4등급) 2.0 LP(MT) : 11.2km/l / CO2 배출량 : 159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425kg / 수동6단(4등급) 2.0 LP(6SG) : 11.0km/l / CO2 배출량 : 159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449kg / 자동6단(4등급) \*트랜스폼 택시▶정부 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2.0 LP : 10.4km/l / CO2 배출량 : 170.1g/km / 배기량 : 1,999cc / 공차중량 : 1,471(1,510)kg / 수동5단(4등급), 자동4단 대형(4등급) \*워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정속주행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BLU hands** 차량관리서비스는 BLUhands가 책임지겠습니다  
회원혜택 : 불루점검, 케어서비스 / 긴급출동 / 불루포인트 / 견인서비스